

浮碧樓重修記와 같은 活字 印本들

—反“聚珍字”論—

尹 炳 泰*

<目 次>

- | | |
|----------------------|------------------------|
| 一. 머리에 | 六. 이 活字의 成立에 대하여 |
| 二. 浮碧樓重修記 | 七. 所謂 “聚珍字”의 名稱에 대한 反論 |
| 三. 所謂 “聚珍字”에 대한 諸家見解 | 八. 燕窩木(唐)字에 대하여 |
| 四. 이 活字의 다른 印本들 | 九. 끝으로 |
| 五. “鑄字”說에 대한 反論 | |

1. 머리에

이 小論은 筆者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인 浮碧樓重修記라는 책을 再整理하던中, 그 책이 從來에 “聚珍字라는 鑄字”라고 訛論된 木活字로 적은 책인 것을 確認케 되어 그 名稱에 대한 問題와 最初印本, 그리고 그 活字로 적은 다른 印本 및 이에 대한 여러 사람의 見解 等, 궁금한 것을 손에 닿는대로 究明한 바를 적어 놓은 것이다.

2. 浮碧樓重修記

이 책은 現在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請求記號는 B-10. A-124이고 登錄番號는 5160이다.

이 冊의 收藏된 經過는 圖書原簿에 “在庫分”으로 되어 있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韓國戰爭以前에 이미 收藏된 것은 事實이다.

이 책의 表紙는 改裝한 것으로 原裝幀이 아니며, 表紙上에 “浮碧樓重修記

* 高麗大學校 司書

浮碧樓重修記

環箕都十步一樓五步一亭練光浮碧居其最練光似錢塘蘇堤浮碧似韜光冷泉而大名之下人莫能甲乙焉吾友竹石徐公按西節之明年以重修浮碧樓馳書報曰浮碧練光孰勝請有以文噫公之意可知也余嘗再渡沮水登斯樓而望之沸江之委至此始大一灘一淵屈而西注綾島受之如鋪碁局中流而可居乙密之臺上聳而下蟠布其右支為求明之寺根插于江斗起而為清流之壁邈迤展屏倒景青泓與隔江羣山相暎發而翼然臨于其上者斯樓也

全”이라 題書되어 있고, 또 本文 첫머리에 浮碧樓重修記라는 題目이 붙은 글이 綴하여져 있기에 이 책의 書名으로 擧하게 되었다.

책수는 1冊으로 모두 9張이며, 크기는 세로 28cm 가로 18.8cm 이다. 그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半匡: 20.8×15.1cm. 有界 10行 20字. 版心: 上下白口. 上黑魚尾(單線, 單絲) 單線이다.

이 책의 版式을 더 補充해서 說明한다면, 邊欄의 四隅가 太宗·世宗朝에 이루어진 癸未字本·庚子字本이나 그리고 正·純祖朝에 이루어진 整理字·生生字·春秋綱字 印出本の 경우와 같이 固定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印本 다음에 찍은 책으로 짐작되는 同一한 活字印本에 있어서는 四隅가 若干 벌어져서 組立式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活字로 찍은 틀이 처음부터 固定式이었던 것이 그 使用이 甚함에 따라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邊欄을 이룬 材料는 그 印紋으로 보아 金屬이며, 肉眼으로 木理처럼 보이는 것은 拙질한 자욱이 分明하다. 界線 역시도 金屬線인 反面, 版心의 魚尾는 나무가 그 材料인 것 같은 印象이 깊다.

이 책을 찍은 活字는 從來에 “聚珍字”라는 “鑄字”가 아닌 木活字이며, 이에 對하여는 項을 달리하여 言及키로 하였으므로 省略한다.

그 內容을 보면

① 浮碧樓重修記”로 張次表示없는 2張이며, 文末에 「…上之九年己巳(1809)秋七月既望延安李晚秀(1752~1820)記」라 있는 平壤 浮碧樓의 徐榮輔에 의한 重修記事가 실려있다.

② 新修浮碧樓記로 역시 張次表示없는 2張이며, 文中과 文末에 「…准九年靑龍己巳(1809)火流之月既望之日…平州申大羽(1725~1809)記」라 있는 前記①과 大同小異한 記事이며,

③ 重修浮碧樓(略)와 浮碧樓次牧隱韻²⁾이라 題目이 붙고 「…按使竹石山人題」라 한 詩 2首가 張次表示 없이 1張이 있고.

④ 挹灑樓重修記³⁾ 2張으로 文末에 「…庚午(1810)仲春三日安東金祖淳(17

1) 平壤續志. 五 1.34A~35A.

2) 上揭書 三 1.20B~21A.

3) 上揭書 五 1.30B~31B.

65~1831)記」라 한 역시 平壤城 東門의 摺瀨樓를 徐榮輔가 重修한 記事가 실렸고

⑤ 重修舍穆門記⁴⁾ 2張으로 文末에 「…上之九年己巳(1809)達城徐榮輔(1759~1816)記」라한 自身이 平壤城 南門을 重修한 記事를 쓴 것이다.

이들 記나 詩들은 註記에 別示한 바와 같이 申大羽의 新修浮碧樓記를 除外하고는 平壤續志⁵⁾에 그 全文 또는 一部가 收錄되어 있어 人口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실린 樓門에 대하여는 平壤志⁶⁾나 平壤續志와 같은 古地志 그리고 近刊의 平壤이나 平安南道の 案内誌⁷⁾에 紹介되어 있고, 또 箕城全圖⁸⁾와 같은 古地圖 등에 繪圖가 실리거나 따로히 寫眞紹介가 있어 省略키로 한다.

이 책의 編者는 實 本文을 보면 徐榮輔를 言及한 3首의 記와 徐榮輔가 지은 2首의 詩와 1首의 記에 의해 徐榮輔가 가장 有力視된다.

徐榮輔에 대하여는 韓國人名大事典⁹⁾에 그의 略傳이 실려 있으니, 그에 의하면 “字는 景在, 號는 竹石, 本貫은 達城이며 1790년에 進賀謝恩使의 書狀 官으로 淸나라를 다녀와서, 純祖初에 平安道觀察使를 지내고,” 善書했으며¹⁰⁾ 純祖實錄¹¹⁾에도 여러번 나오는 사람이다. 그는 著述이 많았으나 그의 文集이 刊行된 것을 筆者는 아직 보지 못하였고, 다만 그 稿本으로 생각되는 竹石館遺稿¹²⁾·竹石館詩抄¹³⁾(孤松門詩抄·交鈔考, 合綴)等이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에 收藏되어 있으며, 그가 지은 冊의 刊本으로는 楓嶽記¹⁴⁾ 1冊이 通

4) 上探書 五 1.31B에 要約된.

5) 本校本 5卷으로 卷末에 「丁酉春箕城重刊」이라는 木記가 있으며, 1964년에 平南民報社에서 影印되었다.

6) 木版本 9卷으로 尹斗壽가 撰한 것이며 1964年 平南民報社에서 上記 平壤續志와 함께 合冊되어 影印되었다.

7) 1. 平壤要覽. 平壤實業新報社, 編. 東京, 明治42 (1909)

2. 掖道誌: 平壤誌. 平壤, 平壤簡工社, 1936.

3. 平壤全誌. 平壤商工會設所, 編. 平壤, 1927.

4. 廣淵堂二: 歷史의 平壤. 平壤, 三谷活版所, 1929.

8) 箕城全圖. 彩色寫本. 1軸 서울大附屬圖書館藏(古軸4709—12)

9) 韓國人名大事典. (同)編纂室, 編. 서울, 新丘文化社, 1972. p.341~342.

10) 筆者編. 韓國古書綜合目錄에도 竹石奉教書帖, 橋進帖 등이 紹介되고 있다.

11) 朝鮮王朝實錄 總索引. 國史編纂委員會, 1963. p.364

12)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D1—A122) 稿本. 不分卷 8冊.

13)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B7—A29)自筆稿本 1冊. 交鈔考·孤松門詩抄와 合綴됨.

14) 純祖 7年(1807)年頃刊. 木版本. 1冊. 第八頁 參照.

行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徐榮輔가 平安道觀察使로 在任한 것은 平壤續志에 나와 있으니

趙得永<丁卯來> 徐榮輔<戊辰來>

李晚秀<庚午來> 鄭晚錫<壬申來>¹⁵⁾

이를 보면 純祖8年(1808)부터 늦어도 純祖10年(1810)初間에 在任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이 책의 印出年代는 언제인가하면 ① 金祖淳의 記가 純祖10年2月에 이루어진 것과 ② 徐榮輔가 平安道觀察使로 在任한 純祖8~10年, 또는 次任者인 李晚秀가 在任한 純祖10~11年間, ③ 그리고 이 책을 찍은 活字의 磨滅이 전혀 보이지않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純祖 11年(1811)에는 印出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이 印出年度의 推定이 옳다면 從前에 이 活字로 찍은 책의 最初印本으로 알려진 南公徹의 金陵集의 印出年度인 純祖15年(1815)의 印出보다 5年前에 이 책을 印出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從來에 金陵集이 차지하고 있던 이 活字 最初 印出本으로서의 價値¹⁶⁾는 없어지는 것이며, 그 대신 이 浮碧樓重修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이 책의 價値는 韓國古活字本의 正統系譜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높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은 어디서 印出되었을가? 그 場所는 적어도 두 곳을 推定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平壤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서울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 活字에 대한 疑問들이 풀림으로서 解決이 될 것이다.

三. 所謂聚珍字本에 關한 諸家見解

이 活字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여러 사람이 言及하였으며, 特히 그 字本·名稱의 由來·活字의 材料·成立의 時期와 使用期間·最初 印本·最終 印本·活字의 行方과 現存與否·그리고 印出本 等에 關하여 各各 다르거나 같은 見解를 發表한 바 있다.

15) 平壤續志二 1.41A.

16) 이 金陵集은 “所謂 ‘聚珍字’의 最初 印本으로서 그 字本”이라 하며 貴重書로 指定되어 있어 利用者에게 많은 不便을 주어 온 바 있다.

이제 이들을 大略 發表하거나 引用한 順序대로 들어 보기로 한다.

1. 前間恭作的 見解

前間恭作先生の 見解는 어느 論文에나 言及됨으로 그 論文을 全譯한다. 그는 “朝鮮の板本”에서

이 鑄字는 最初로 나온 手(筆)書體의 字로서 特別한 稱呼는 없으며 단지 聚珍이라 말하고 있다. (聚珍으로서 活字 全般을 가리킨 例도 있으나 南公徹은 그의 文集에서 이 字로된 책의 題顔에 다른 책의 全史字體에 對한 聚珍板本이라 쓰고 있다) 말하자면 中國崇拜에서 聚珍板을 옮긴 善인 가 보다. 字體는 華本을 板下를 한 모양으로 글자의 크기는 實錄字 보다 작고 小形으로 唐字보다 大形이다. 글자나 刻은 결코 나쁘지 않다. 嘉慶 甲戌이나, 乙亥에 南公徹이 館閣을 主宰한 時代에 그 자미로 新鑄케 된 것으로 생각한다. 嘉慶三十年乙亥(1815)에 南이 自家의 著作詩文 二十四卷을 金陵集의 이름으로 이 字를 써서 刊行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해 丙子에는 洪耳溪의 海東名將傳이 이 것으로 印刷되고, 二十年後에 南은 다시 그 文集을 改選하여 歸思堂集 十卷을 印成하고 있다. 書目第百六十九

그것은 道光十四年甲午(1834)이다. 그 後에는 徐命膺의 保晚齋集 十六卷이 道光十八年戊戌(1838)에 이것으로 印刷된 것이 마지막 같으며 이 活字의 책은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中國에 心辭 絶頂했던 時代의 일로서, 그 鑄字의 印本은 名將傳 以外는 모두 白紙나 唐紙에 印刷되었으며 題顔·板格·題簽·表紙의 色·裝禎(많이 帙函을 써서) 무엇부터 무엇까지 唐本 그대로 되어 있어,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모양이 되어있다. 書目第百七十¹⁷⁾라고 言及하고 歸思堂集과 保晚集의 2種을 例示하고 그 解題를 하고 있다.¹⁸⁾

2. 金元龍博士의 見解

金博士는 이 活字에 대하여 두번 發表하였는데 첫번인 韓國古活字概要에 서는

平壤에는 後에 箕營活字라고 불리운 有名한 活字가 있다. 그 字體는 亦是 聚珍板字를 字母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製作되었는지는 確實하지

17) 前間恭作, 述. 朝鮮の板本. 福岡, 松浦書店, 昭和 12(1937) p.52~53 “甲四 聚珍字.”

18) 上掲書 p.183~184.

않으나 正祖十六年(一七九二)의 五山集이 現存로서는 第一먼저 印刷된 것 같다. 그 뒤로는 保晚齋集이 있다.¹⁹⁾

고 한다음 圖版20A에 箕營木活字라 하여 保晚齋集을 寫眞으로 보여주고 있다.²⁰⁾ 그리고 두번째 鄉土서울에 發表한 論文에서는

그런데 여기 中央政府의 官鑄活字는 아니지만, 一種의 半官 半民 活字로서 이 當時에 使用된 것에 聚珍字 또는 箕營木字라고 불리우는 木活字가 있다. 이것이 最初로 使用된 것은 生生字가 만들어진 正祖 16年(1792年)에 平壤 監營에서 刊行된 車天駱의 五山集이다. 이 것은 當時의 平安監司 洪良浩가 中央의 命令을 받고 校刊한 것이며, (略) 이 活字는 縱 1.0 浬 橫 1.0 浬程度의 端正한 楷書 體이며, 앞에서 生生字 時에 言及하다시피 聚珍版 四庫全書印刷에 쓰인 또 한가지의 字體였다. 耳溪가 五山集을 刊行한 해는 바로 政府 命令으로 生生字 本字 16萬字를 加造한 해이며, 推測컨대 生生字 製作時에 이 聚珍字는 함께 만든 모양이다. 그런데 洪良浩는 純祖 2年(1802年)에 別世하였는데, 그의 死後 14年만인 1816年에 그의 孫 洪啓謨에 依하여 같은 活字로 海東名將傳이 發刊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丙子新刊四宜堂藏이라는 記가 붙어 있다. 四宜堂은 洪氏의 號이며 이것이 洪氏自刊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或是 耳溪 別世 後 그의 木活字가 子孫에게 넘어 갔는지 알 수 없으나, 이보다 1年앞서 有名한 南公轍이 聚珍 字體의 銅活字를 鑄造한 것 같은 痕跡이 있어 或是 洪啓謨가 緣故를 좇아 南氏의 銅製 聚珍字를 利用했는지도 알 수 없다. 南公轍의 鑄字 推測은 그의 金陵集이 1815年에 이 聚珍字로 刊行되었는데, 거기에 「以鑄字 開印」이라는 刊記가 있고, 또 같은 字로 그의 歸恩堂集이 1834年에 刊行되고 있을 뿐아니라 그는 純祖 21年頃에 全史字라는 銅活字를 鑄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從來의 木活聚珍字를 銅으로 改鑄할 可能性이 많다. 特히 前問恭作的 在山樓蒐書中에는 南公轍에게 內賜된 五山集이 있으며 南公轍은 이와 같은 機會를 通하여 箕營木活字를 實見하고 그 字體를 따른 銅字를 鑄造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事實 南公轍은 領議

19)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國立博物館叢書 甲 第一) p.21

20) 上掲書. p.35 및 圖版 二〇A..

政까지 올라간 一代의 大官이었을 뿐 아니라 廣汎한 古書畫 蒐集 趣味를 가졌던 風流人으로 그의 文人的 趣味가 그러한 雅趣있는 活字를 私有 活字로 再造하게끔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憲宗 4年(1838)에 校書館에 依해 編定된 徐命膺의 保晚齋集이 그의 孫 徐有矩에 依하여 같은 聚珍字로 刊行된 것도 徐命膺이 行平安監司였다는 緣故로 南公轍에게 依賴하여 箕營 由來인 聚珍字로써 印刷된 것인지 알 수 없다.

現在 알려져 있는 聚珍字 刊行 例로는 五山集(1792年), 金陵集(1815年), 海東名將傳(1816年), 雨念齋詩鈔(1832年), 歸恩堂集(1834年), 保晚齋集(1838年), 等이며 前後 約40年쯤 使用되고 있다.²¹⁾

라고 言及하고 있다.

3. 金斗鍾博士의 見解

金斗鍾博士는 大東文化研究에 發表한 論文에서 “十 聚珍字”라 하여

本 活字印本은 純祖 15年(西紀 181年)에 南公轍이 自身の 著作詩文集인 金陵居士文集을 印出한 것이 처음이다. 本活字體는 鈔寫의 筆書體의 一種인데 그 名稱을 特히 聚珍字이라고 定한 것은 本活字의 初印本인 金陵居士文集의 題顔에 聚珍板本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聚珍板이라는 것은 活字板을 意味한 것이다. 淸, 乾隆 48年(正祖 7年, 西紀 1783)에 木活字로서 武英殿全書를 完印하고 그 全書를 聚珍板全書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名稱은 木板本에 對한 活字本의 總稱이다. 南公轍이 特히 聚珍板字이라고 指摘한 것도 活字本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純祖 22年에 刊行한 全史字印本인 南公轍著의 高麗名臣傳에도 聚珍板本이라는 것을 明記하였다. 그러나 元일인지 이런 筆書體字의 印本만이 이미 聚珍字印本으로 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다. 淸의상 本活字印本에 對한 그 名稱을 그대로 襲用하기로 한 것이다.

本活字의 成立에 關한 文獻的資料를 明白히 指摘하기 어려우나 推測컨대 南公轍이 當時의 館閣을 主宰하던 때이므로 自家의 詩文集을 刊行하기 위하여 新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本 活字의 字體는 明나라의

21) 金元龍 “李朝後期の 活字印刷” 總士서술, 第77號, p.48~50 (1959. 12)

崇禎癸未(仁祖 21年 西紀 1643)年刊인 錢牧齋先生初學集字를 模刻한 것인 것 같다. 本字體는 明末人들이 많이 模寫하였다. 本字體와 同一한 板本으로 崇禎存實疏鈔가 있다. 牧齋集은 일찍 부터 우리 나라에 輸入되어 向明 儒人들의 愛讀書의 一種으로 되어 있었던 만큼 그 字體를 쉽게 模刻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한 다음 私藏活字本書目中에서 金陵居士文集·海東名將傳·雨念齋詩鈔·歸恩堂集·保晚齋集 등을 列舉하고, 이어

以上과 같이 本活字印本는 純祖 15年으로부터 憲宗4年頃까지 約 24年間에 걸쳐 위에 記한 5種의 印本을 보았을 뿐이다.

本活字印本은 官府關係文籍에는 보이지 않고 私家의 文集인 當時館閣에 關聯되었던 洪良浩, 徐命膺 등의 著書를 印出하였다. 이것으로써 本活字가 南公轍의 私家鑄造物로서 交誼가 두터웠던 親知들간의 利用에 끝났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本活字의 印本들은 그 體裁, 表紙, 用紙, 題簽 및 裝禎까지 거의 唐本들의 形態를 그대로 模倣하였다.

라고 言及하였다.²²⁾

4. 白麟先生의 見解

白麟先生은 韓國史研究에 發表한 論文에서 “19. 聚珍字”라 하여

이 活字의 印本은 純祖15年(1815) 乙亥에 印出된 南公轍의 著作集인 《金陵集》을 最初로 한다.

《金陵集》의 活字는 韓國古活字史上 가장 뒤에 만들어진 筆書體의 活字인데 特別한 名稱이 없이 다만 聚珍字라 불리워 왔던 것이다. 《金陵集》의 標題紙에 의하면

居士集 舊有爾雅堂本 玉磬山房本 西京本 凡三集 歲乙亥 以鑄字開印 刪
繁就約一 以西京本爲準爲二十四編 印後著作 當以絢藻繼刊 付于卷尾
라 記錄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同書가 乙亥 即 純祖 15年(1815)에 木活字가 아닌 鑄字로써 印出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 p.42~43 (1967.7) “十. 聚珍字”

그러나 이 活字가 어느때 어디서 무엇을 字本으로 하여 鑄造된 것인지 그 鑄成에 관한 文獻的 資料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것을 왜 聚珍字라 했는가의 問題에 앞서 그것의 鑄成年代를 살펴 보면 前間氏는 前記한 《金陵集》의 刊記에 徵하여 이 活字의 鑄造年代를 「嘉慶甲戌이나 乙亥에 南公轍이 館閣을 主宰하던 時代에 그의 好奇心에서 新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活字의 印本으로서 《金陵集》보다 앞서는 것이 發見되지 않으므로 지금에 있어서는 그 鑄成年代를 純祖15年 以前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聚珍字라는 名稱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活字의 字本을 中國本을 板下로 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 字本된 書籍이 무엇인지 確實치 않다. 金斗鍾氏는 이 活字의 字體는 明나라의 崇禎癸未(仁祖 21年, 1634)年刊인 錢牧齋先生初學集字를 模刻한 것인것 같다고 하였듯이 字樣이 비슷하다. 그러나《牧齋集》이 곧 이 活字本이 되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와 비슷한 字體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字體는 當時에 中國에서 흔히 通用되던 字體이다. 어쨌든 中國印本을 字本으로 하였기 때문에 聚珍字라고 名稱하였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어느 때부터 그와 같이 불려 왔는가. 筆者의 考察한 바로는 《保晚齋集》에서 부터라고 본다. 卽 《保晚齋集》의 卷頭に 「宣賜宸藻, 奎章之寶」라 하고 跋文中에 「以丁未編定本, 用聚珍字 擺印敬慕宣賜, 宸藻揭諸卷首……」라고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 鑄成한 活字이나 하는 문제인데 이 活字는 官鑄字가 아니고 南公轍이 自家의 詩文集을 刊行하기 위하여 新鑄한 것이라는데 意見이 기울어져고 있다.

筆者의 생각에도 《保晚齋集》의 編刊에서 보거나, 또는 이 活字에 관한 것이 實錄이나 기타 諸記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南公轍의 私鑄에 의한 것으로 믿어진다.

어쨌든 活字로서는 과히 나쁘지 않은 字體이다. 이것이 南氏家의 私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인지 官版本에서는 이 活字印本の 例는 發見되지 않으며 大體로 南氏自身의 著述과 또 그와 관계되는 人士의 文集이 이 活字

로서 印出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活字印本の 最初の 例로서는 純祖15年(1815) 刊의 《金陵集》인데

하고 그 版式을 적은 다음, 이어

이 活字가 使用된 例를 보면 純祖16年 丙子에는 洪良浩의 《海東名將傳》을 印刷하였고, 純祖 34年 甲午(1834)에는 南氏가 자기의 文集을 改撰하여 《歸思堂集》이라 名題하고 이 活字로써 刊行하였으며, 또 憲宗4年 戊戌(1838)에는 校書館에서 編定한 徐命膺의 《保晚齋集》이 그의 孫子인 徐命槩에 의하여 이 活字로 刊行되었는 바 이것이 이 活字가 使用된 最後의 例가 아닌가 생각된다.

라고 言及하였다.²³⁾

5. 孫寶基博士의 見解

孫博士는 “한국의 高 활자”에서 “40 聚珍字本”이라 하여 金陵集의 標本을 보인 다음 아래와 같은 說明을 붙였다. (英文은 略한다)

1815년 印 《金陵集》

南公徹(1760—1840)의 文集이다.

錢謙益의 《初學集》의 字本에서의 淸의 聚珍字體를 본 받아 南公徹이 銅合金으로 주조한 活字로 찍었고 종이도 淸에서 수입하였으며 製冊도 中國式으로 되어 있다.

- 1) 標 本 : 제1권 제1엽 7
- 2) 鑄造年代 : 1815년 이전
- 3) 活字材料 : 銅錫(銅合金)
- 4) 活字크기 : 大 1.1×1.5cm, 小 1.1×0.7 cm
- 5) 字 本 : 初學集
- 6) 四 周 : 單邊(非固定)
- 7) 界 線 : 10線 ㉠
- 8) 字 行 : 大20字10行, 小20字20行

23) 白麟 “朝鮮後期活字本의 形態, 書誌學的研究(下)” 韓國史研究, 4, p.143~144(1969. 6) “19. 聚珍字.”

9) 版 口 : 黑口

10) 魚 尾 : 上黑

11) 半廓크기 : 22.2×15.4cm

12) 半葉크기 : 29.9×19.5cm

13 다른 印本 : 《五山集》《海東名將傳》《雨念齋詩鈔》《歸恩堂集》《保晚齋集》라고 說明하고 있다.²⁴⁾

6. 李聖儀씨의 見解

華山 李聖儀씨는 韓國古活字冊書目에서 “聚珍木活字(辛亥活字)라 하여 本書는 正祖十五年(1815)에 平壤監司洪良浩에 命하시와 箕城人車天洛의 文集을 出版하기 爲해서 中國으로 聚珍活字冊原本을 得來해서 其活字体로 爲本해서 內閣에서 校正하고 箕營에서 活印하다.

라 한 다음 五山集을 들고, 이어 “聚珍木活字(乙亥活字)라 하여

本書는 正祖十五年(1815)에 最初로 印出된 初期聚珍字로 爲本도 하고 又是 中國으로 廣求해서 改彫刻된 聚珍木活字를 得來하여서 처음으로 南公徹의 文集을 印出하였다云한다.

고 하고, 金陵集·海東名將傳·保晚齋集·圭齋詩鈔를 들고 있다.²⁵⁾

7. 其他

가. 千惠鳳教授

그의 古書分類目錄法에서 鑄字版(銅活字 鉛活字 鐵活字의 各種 金屬活字版)속에 包含하여

聚珍字版(純祖15年(1815)頃에 銅鑄한 活字版)²⁶⁾

이라 들고 있으며,

나. 韓國印刷大鑑

韓國印刷大鑑에서는 金斗鍾·李丙巖·金錫淳·朴熙永·千惠鳳 監修로 安熙霖씨가 記하기를

聚珍字. 그 후 聚珍版을 자본으로 하여 만든 동활자가 있다. (略) 이 활

24) 손보기 : 한국의 고판자.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1. p.128~129. “40 聚珍字本”

25) 李聖儀. 韓國古活字冊書目. 1965. 法印本 p.80~81

26) 千惠鳳 : 古書分類目錄法(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韓國圖書館學叢書(14-2) p.111

자의 銅鑄에 대하여는 문헌상에 뚜렷한 기록이 없어 확실히 밝힐 수 없으나 南公徹이 純祖15년(1815년)에 인출한 바 있는 自著의 金陵居士文集에서 처음으로 보이므로 활자의 제조연대를 181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활자는 半行半楷의 자체이며 아마도 南公徹이 純祖 14년경 館閣을 主宰하고 있을 무렵에 그의 중국취미가 이러한 활자를 銅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略)²⁷⁾

고 言及하고 있다.

다. 李潭周

李潭周씨는 그가 編한 韓國古活字集에서

聚珍字는 純祖16年(1816) 中國 武英殿聚珍字를 爲本하여 刻字한 木活字이다. 憲宗4年(1838)에 業書館에서 편집한 徐命膺의 文集인 保晚齋集이 이 活字로 간행되었는데, 保晚齋集의 跋文中에 「用聚珍字擺印敬慕宣賜」라

表一 諸家見解總括表

言及事項	言及者	前間恭作	金元龍	金斗鍾	白 麟	孫寶基	李聖儀	千惠馥	李 澗	安熙霖
名 稱		聚珍字	聚珍字·箕營木字	聚珍字	聚珍字	聚珍字	木活聚珍字	聚珍字	聚珍字	聚珍字
書(字)體		筆書體		筆書體	筆書體					半行半楷
字 本				錢牧齋先生初學集		初學集				
名稱의 由來	南公徹文集		金陵居士集 題額	保晚齋集 跋文					保晚齋集跋文	
活字의 材料와 根據	鑄字	銅	鑄字	鑄字·金	夫쇠(銅合金)	木	銅		木	
만든 사람과 機關	南公徹		南公徹	南公徹私		中國改雕				
만든 時期	1814~5頃			1815	1815以前		1815頃			
使用 期間	1838까지	約40年間								
最初 印本	金陵集	金陵居士集	金陵集	金陵集		南公徹文集				
最終 印本	保晚齋集	保晚齋集	保晚齋集	保晚齋集						
活字의 行方과 現存 與否										
其他(用紙·裝幀, 등)	唐紙·唐裝		唐本橫做		中國式					

27) 安熙霖, 記. “世界最初の 金屬活字,” 韓國印刷大鑑, 서울, 大韓印刷工業協同組合聯合會, 1969. p.92~93

말이 있어 이 活字가 聚珍字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印本으로는 現在 金陵集이 있다.²⁸⁾

고 한 다음 第50圖에 金陵集의 版式과 實物標本을 例示하고 있다.

8. 諸見解의 綜合

위와 같은 여러 사람의 見解를 일일이 批評하는 것은 本論考의 趣旨가 아
 념으로 이를 綜合하여 一覽表를 만들면 위와 같다.(表一 參照)

다만 이 一覽表에서는 五山集을 印刷하였다는 所謂 “箕營木活字”에 對하
 여는 筆者로서는 異論이 있어, 위 文獻들에 비록 引用·言及하였다 하드라
 도 除外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위 表一을 보고 總括해 보면

① 字名은 李聖儀씨가 聚珍木活字라 한 것 以外의 사람들은 모두 聚珍字라
 불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書體는 筆書體 또는 半行半楷書體이고

③ 字本은 武英殿聚珍板 또는 錢牧齋初學集을 들고 있으며,

④ 名稱의 由來는 金陵集의 標題紙나 保晚齋集의 跋文을 들고 있다.

⑤ 活字의 材料로는 李聖儀·李潭周 두분은 木, 다른 사람들은 金屬인 鑄
 字·銅·놋쇠 등을 들고 있으며, 그 根據의 하나로 金陵集 標題紙의 傍書를
 들고 있다.

⑥ 그 活字를 만든 사람에 대하여 李聖儀씨를 除外하고, 言及했던 사람들
 은 모두가 南公轍의 私鑄로 생각하고 있고

⑦ 活字가 만들어진 時期는 대체로 1815年頃으로

⑧ 그 最初 印本은 南公轍의 金陵集이며(五山集은 除外하고)

⑨ 그 最終 印本은 保晚齋集이며(李聖儀씨는 圭齋詩鈔)

⑩ 使用期間은 대체로 1838年 까지로 보고 있으며

⑪ 이 活字의 現存 與否와 行方에 대하여는 言及치 않았고

⑫ 이 活字로 찍은 책들은 用紙부터 裝幀에 이르기까지 唐本 그대로를 模
 倣하고 있음을 言及하고 있다.

28) 李潭周, 編著. 韓國古活字集. 1967. p.17

四. 이 活字의 다른 印本들

그러면 위에 列擧하고 言及된 事實들이 妥當성이 있으며 또한 事實인가를 再檢討할 必要가 생긴다. 그러기 위하여 于先 이 活字로 印出된 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아야 하겠다. (表二 參照)

이 책들은 이미 先學들이 言及한 책들이며, 또 그 解題는 韓國圖書解題²⁹⁾나 古鮮冊譜³⁰⁾에 실려 있으므로 省略하거니와 그 形態書誌的記述는 筆者가 緝한 韓國古書綜合目錄³¹⁾과 앞으로 나올 朝鮮典籍誌(未刊)를 參考하기 바라며, 寫眞은 紙面關係로 역시 筆者가 採錄하여 놓은 韓國古活字本圖錄(未刊)에 미룬다.

이들 中 筆者가 實査한 책에서 “奎”는 奎章閣藏本(現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保管中)이며, “藏”은 文化財管理局藏書閣事務所藏本, “서”는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藏古圖書本, “高”는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本, “六”은 高麗大

表二 이 活字 印出本 및 關聯本

印出年度	書名	實査한 冊	備考
1791	五山集	華, 奎, 藏	※
1792	牧民大方	서	※
1792	聚珍字譜	(未見)	(日省錄·承政院日記에 引用)
1807	松嶽記	高, 奎	※
1811	浮碧樓重修記	高	
1815	金陵集	六, 華, 奎, 藏	前, 三, 一, 牛, 華
1816	海東名將傳	六, 華, 奎, 藏	前, 三, 一, 華
1832	海居齋詩鈔	高, 서	三, 牛
1832	雨念齋詩鈔	藏, 서,	三, 一, 南漣藏
1834	歸恩堂集	高, 奎, 서	前, 三, 一, 牛
1834	種譜譜	高, 奎	※
1838	保晚齋集	高, 六, 華, 奎, 서, 藏	前, 三, 一, 保, 華
1860	圭齋詩鈔	華	※
1862	晚香齋詩鈔	忠南大, 藏	※
1899	五賢粹言	高	※

※ 備考欄의 ※表示는 下記說明參照

29)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韓國圖書解題. 서울, 同研究所出版部, 1971.

30) 前岡恭作, 編.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事, (東洋文事叢刊第十一) 3冊.

31) 筆者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書圖書館, 1968.

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藏 六堂文庫本, “國”은 國立中央圖書館藏古朝鮮本들이다.

備考欄에는 先學들의 論著에서 言及된 책들이며 “前”은 前間恭作, “一”은 一山 金斗鍾博士와 “한국의 고관자” 引用分 “三”은 三佛庵金元龍博士, “牛”은 牛村白麟先生, “華”는 華山李聖儀先生 言及分들이다.

이들 冊들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筆者가 採錄한 것을 보면 그 所該處가 따로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表二에서 先學들이 言及한

① “五山集”과 “牧民大方”은 所謂 “箕營木活字”라 한 것이며 이에 對한 異論을 따로히 提起함으로 除外했으며

② 圭齋詩鈔는 所謂 “奎史字小字” 印出本같아 除外했다.

그리고 論文外에 口傳된 책中

③ 晚香齋詩鈔는 整理以本 以外에는 未見이며

④ 種譜譜는 倣全史字證의 “倣聚珍完譜木活字”本임으로 이는 따로히 “동대문도서관보”에서 다루게 됨으로 除外했다.

⑤ 五賢粹言 역시 所謂 “箕營木活字本”을 담은데가 많으므로 論考를 달리 했다.

五. “鑄字”說에 대한 反論과 이 活字에 關하여

위와 같이 이 活字로 印出한 冊들이 알려졌다면 궁금한 것은 이 活字의 材料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李聖儀·李潭周 두분이 言及한 木活字 與否와 다른 分들이 論及한 鑄字 與否를 먼저 檢討해야 한다.

이렇게 印刷된 冊子의 印文에 의한 判別의 問題는 最近에도 高麗金屬活字 本인 直指心體要節³²⁾이나 古文眞寶大全³³⁾에서도 있었던 일이며, 筆者로서도 從前에 金斗鍾博士가 主張한 所謂 “印譜木活字”가 鑄字임을 論及한 일이 있으며,³⁴⁾ 또 金元龍博士가 甲辰字라 한 것이 秋香堂活字임을 밝혀냈으

32) 安春根 “「直指心經」活字의 資料考證,” 出版學, 第15輯, p.3~5 (1973. 3)

33) 千恩以 “古文眞寶大全에 대하여” 1973. 11月 國史學會 月例會 發表要旨·油印物.

34) 尹炳泰 “忠義集傳과 校書館 鑄字印本는 一以「印譜木活字」論” 道報월보, v.14, no.10, p.6~10, 19. (1973. 10)

玻瓈大鏡對設一小鏡燃
 間鏡中鏡燈外燈燈燈相
 影晶熒熠燐移神駭目戲
 焰千燈幻一身恰似芙蓉
 空陳十方遍照如來眼百
 燈前悄獨坐莊周蝴蝶是

第二回 海居齋詩鈔(卷一 1.13A 部分圖原寸)

며,³⁵⁾ 그 밖에도 많은 論難이 있었음으로 愼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孫宝基博士가 主張하는 擴大寫眞·立體顯微鏡에 의한 科學的檢査法과 千惠鳳教授가 必要하다고 하는 肉感的 方法을 導用하여, 이 活字가 鑄字인가 木活字인가를 먼저 檢討해 보고자 한다.

35) 尹炳泰 “自營編과 箕城秋香堂活字 印本들一反「甲辰字」字本論” 국회도서관보(校正中).

千惠鳳教授에 의하면 木活字의 特徵으로서³⁶⁾

① “字劃의 시작과 끝에 刀刻의 흔적이 나타난다.” 하였는데, 이들 所謂 “聚珍字”로 印出한 冊의 印文은 한 字 한 字가 例外없이 刀刻의 흔적이 있다.

② “刀刻의 粗拙과 失手로 字劃의 一部가 缺되고 끊긴 것이 보이며, 또 한 劃의 太細가 極端의이다”고 하였는데 이들 印本 역시 이에 符合된다.

③ “字樣이 不整하고 크기가 고르지 않다”는 것도 이들 印本에 알맞다.

④ “한 版面에 비슷한 字樣이 發見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책 역시 가장 改良되었을 近世의 活字인데 不拘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之, 以, 人, 上, 下, 而, 日, 月,” 등의 글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들을 一一히 대조하여도 비슷한 字樣이 發見되지 않는다.

⑤ “먹물이 덜 묻은 곳에서 字劃이 자주 가늘게 끊긴 것이 보인다”한 것으로 맞추어 보면, 역시 이들 印本에도 적용된다.

한편 孫宝基博士의 判別法에 따라 鑄字가 아닌 點을 본다면³⁷⁾

① “木活字本은 肉眼에서도 알아 볼 수 있지만, 寫眞 또는 顯微鏡으로 擴大하면 나무의 木理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들 印本의 글자들은 例外없이 肉眼으로나 擴大해보나간에 木理가 보인다.

② 鑄字本은 擴大에 의해 보이는 斑點이 글자의 번두리에 특히 甚하며, 풀고루 斑點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活字의 印本은 그렇지 못하다.

③ “木活字本은 擴大해 보면 한 字 한 字에서는 먹물이 고루 퍼져있다” 하였는데, 이 活字의 印本들은 이에 符合된다.

④ “鑄字本은 너털이가 자주 發見되며, 그것은 立體顯微鏡에 의하면 壓印한 자욱이 있으며, 墨痕과 같은 平面感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들 印本은 거의 너털이가 없으며, 墨痕은 重印의 경우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으나 立體感은 없고 平面感뿐이다.

36) 千惠鳳：前掲 發表要旨.

37) 이 方法은 孫宝基博士의 敎示에 의해 筆者가 清涼菴顯宗心要法門의 確認에서 試圖한 바 있다. 이 方法은 筆者 역시 가장 客觀性있는 科學的 方法으로 認定하고 있다.

⑤ “鑄字本에서는 斑點이 連續되면 木理처럼 보이거나 立體顯微鏡으로 보면 그것이 斑點의 連續이며, 壓印한 깊이가 있고, 또는 출질한 자욱도 確認된다”하였는데 이들 印本の 木理部分을 調査해보니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은 두분의 方法에 의해 檢討해 보니 所謂 “聚珍字”라는 活字로 印出한 책들은 金屬으로된 鑄字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며, 李聖儀·李潭周 두분이 言及한 것과 같이 木活字로 찍은 책이 分明하다.

한두분 先學께서 金陵集의 標題紙에 있는 傍書에

居士集 舊有 爾雅堂本 玉磬山房本 西京本 凡三集 歲乙亥以鑄字開印 刪繁就約 以西京本爲準 爲二十四編 印後著作當以續彙繼刊 付于卷尾

라 한것에서 「歲乙亥以鑄字開印」의 “鑄字가 金屬活字만을 意味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鑄字”의 字義에 對하여는 일찌기 直指心體要節의 印出記를 보고 安春根先生이 異論을 다룬 바도 있거니와³⁸⁾ 筆者는 金斗鍾博士가 發表한 所謂 “訓鍊都監字”를 再究明하는 過程에서도 알아 낸 일이 있기에 再考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六. 이 活字의 成立에 對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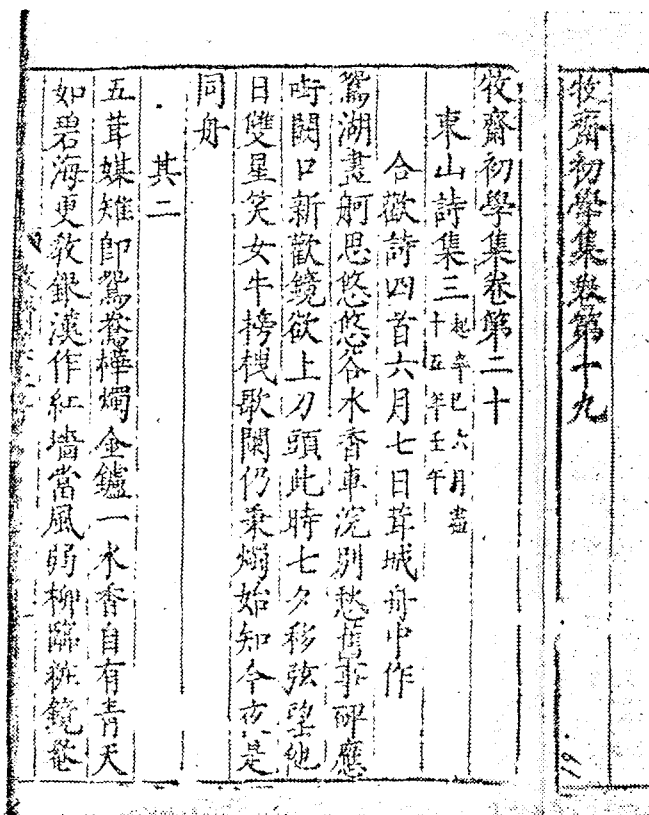
이와 같이 從前에 金屬活字라던 所謂 “聚珍字”가 木活字이라면, 그 刻成의 場所·時期·刻成을 命한 사람, 그리고 活字의 刻成을 위해 板下書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가 究明되어야 한다.

이 活字 刻成의 時期는 前記한 浮碧樓重修記의 印出年度가 純祖11年(1811)으로 確定만 된다면 南公徹이가 刻成(金屬活字說을 主張한 分들의 從前의 私鑄)께 했다고 하는 것은 否認이 될 것이고, 그 時期 역시 맞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기 注目할 것은 華山 李聖儀씨가 “乙亥活字”說을 主張하고, 이를 正祖15年의 初期聚珍字(所謂“箕營木活字”임)를 本으로하고, 한편 中國의 것을 廣求해서 改雕되었다³⁹⁾는 說이다. 이 中 乙亥는 金陵集이 印出된 年度의

38) 安春根. 前掲書 p.4

39) 李聖儀. 前掲書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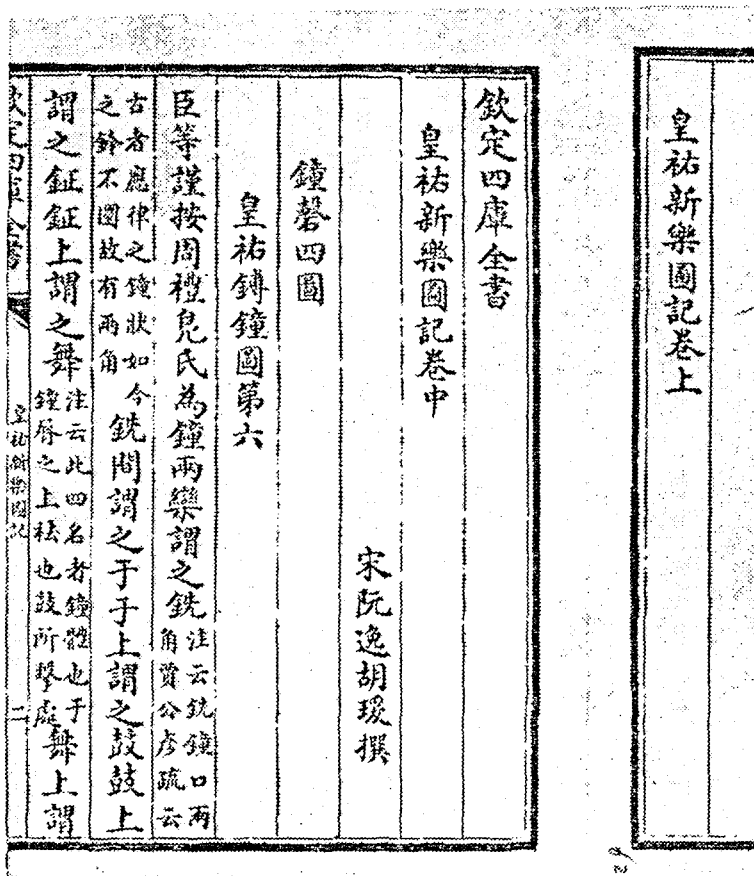
第三圖 牧齋初學集(卷第二十首 1. 1A)

干支를 따서 썼으므로 金陵集이 最初印本이 아니라면 否認되고 말 것이겠지 만, 箕澹木活字爲本問題와 中國廣求論은 再吟味할 必要가 있다.

從來에 金斗鍾博士는 “錢牧齋初學集을 字本으로 篇造하였다.”⁴⁰⁾기에 筆者도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本⁴¹⁾을 實查했든 바 이 책 역시 金博士가 본 冊과 같은 刊本이⁴²⁾ 半行半楷의 筆書體로서, 이 活字의 字體와 비슷하게 보이지 만 若干 다르다.

40) 金斗鍾, 前掲書 p.42

41) 牧齋初學集, 中國木板本, 高麗大學大學校中央圖書館藏, (D/B/) 第三圖參照.



第四圖 欽定四庫全書(皇祐新樂圖記卷中 1.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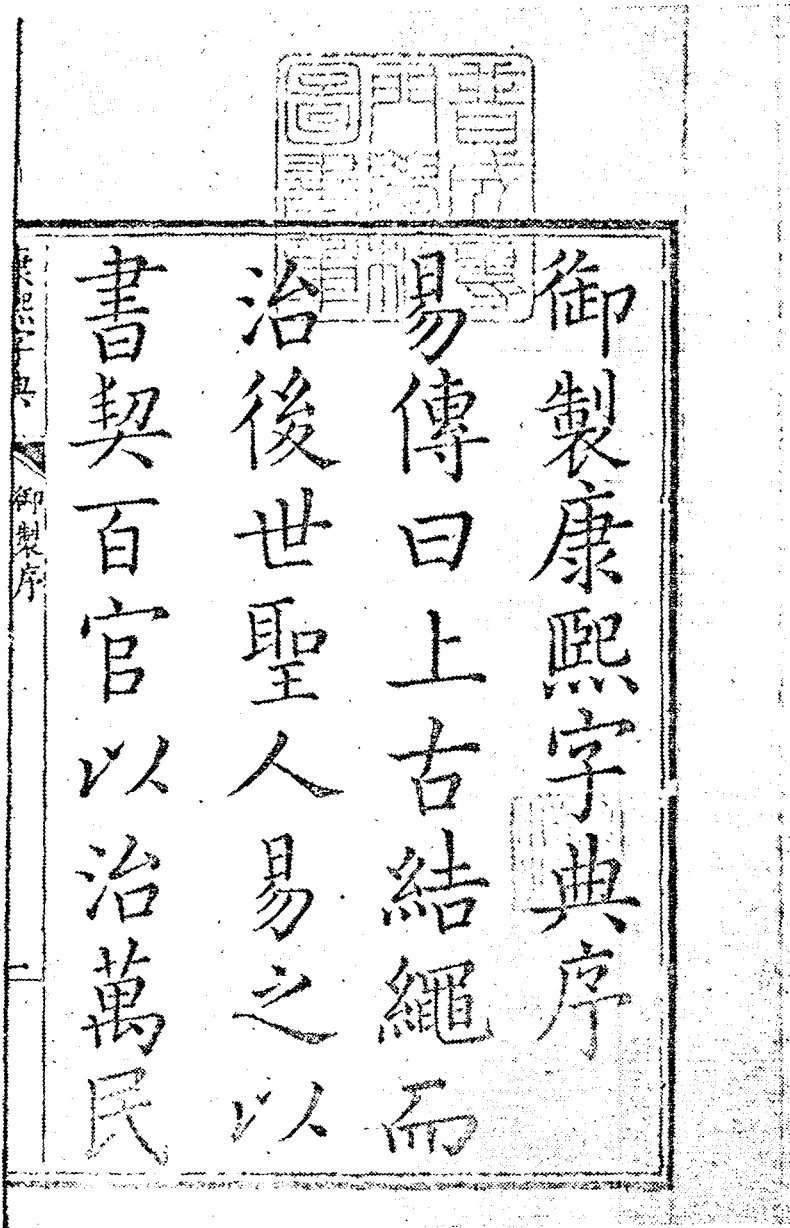
이 活字의 字本에 對해 房兆勳씨 역시 같은 言及을 그의 論文⁴²⁾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는 金陵集이 初印本인 경우였기때문에, 浮碧樓重修記가 出現하자 筆者는 徐榮輔의 著述을 再檢했든 바, 그의 楓嶽記의⁴³⁾ 글씨가 너무나 이들 活字의 字體와 닮은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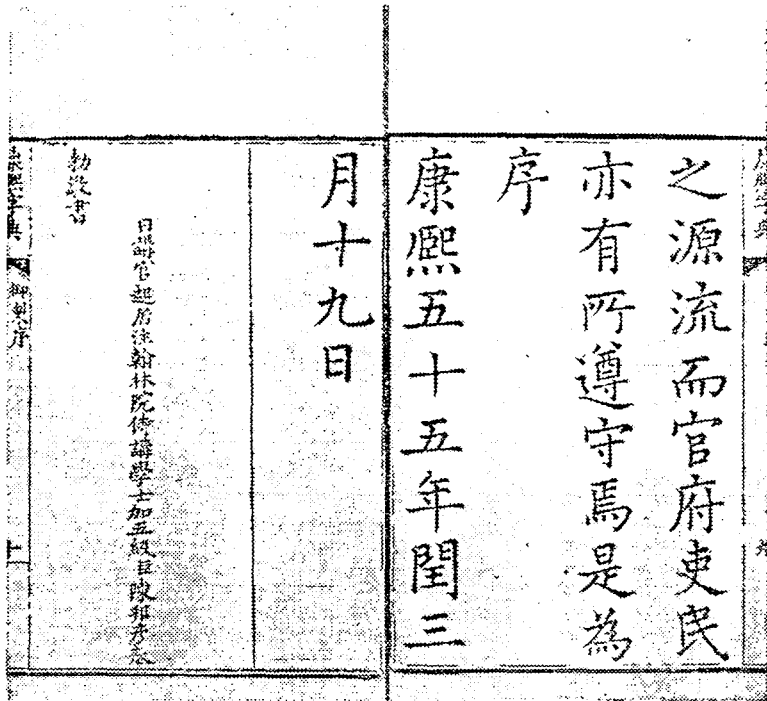
42) 房兆勳 “寫字瑣談” 書誌, 第一卷第二號, p.28~29 (1960. 8)

「…至所謂聚珍版字, 如見於徐命爵保晚齋集, 南公繼歸恩堂集者, 依余所知, 蓋即以錢謙益所著之初學集字體爲字本者也. …」

43) 木板本 1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D1-A131) 第八圖參照.



第五圖 康熙字典(御製序首: l. 1A)



第六圖 康熙字典(御製序 文末: l. 9B~10A)

한편 保晚齋集의 著者인 徐命膺의 著作인 稿本이 역시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에 保晚齋叢書⁴⁴⁾라는 이름으로 收藏되어 있는 바, 이 叢書의 前半部의 글씨體 또한 이 活字의 글씨體와 너무나 닮았다.

여기에서 이 活字의 成立에 대하여 세가지 假說을 設定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中國에서 木活字를 廣求買來해 왔을 경우이다. 이것은 前述한 李聖儀씨의 言及과 다음에 別項으로 다루게 될 “燕買木(唐)字”의 問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箕營에서 中國聚珍堂活字를 模倣해서 刻成했을 경우이다. 이것은 五山集이 箕營에서 印出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跋文에

「車氏三父子並出一家以詩大鳴而唯五山子奇才俊氣特出…我聖上 …命求車

44) 徐命膺, 撰. 徐浩修·徐滄修, 共校. 徐有本·徐有渠, 共閱. 保晚齋叢書. 寫本(稿本) 60卷31册.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E2-A1) 第七圖參照.

保晚齋叢書凡例

一古人編書必有所以主宰綱紀之者易之主宰綱紀則陰陽是已書之主宰綱紀則道法是已詩之主宰綱紀則性情是已禮之主宰綱紀則恭讓是已書凡十有三種雖各自爲一書門戶殊別狀皆以先天爲之主宰綱紀故以先天四演冠于首先天一本也十有二種萬殊也一本貫于萬殊故先天冠于十有二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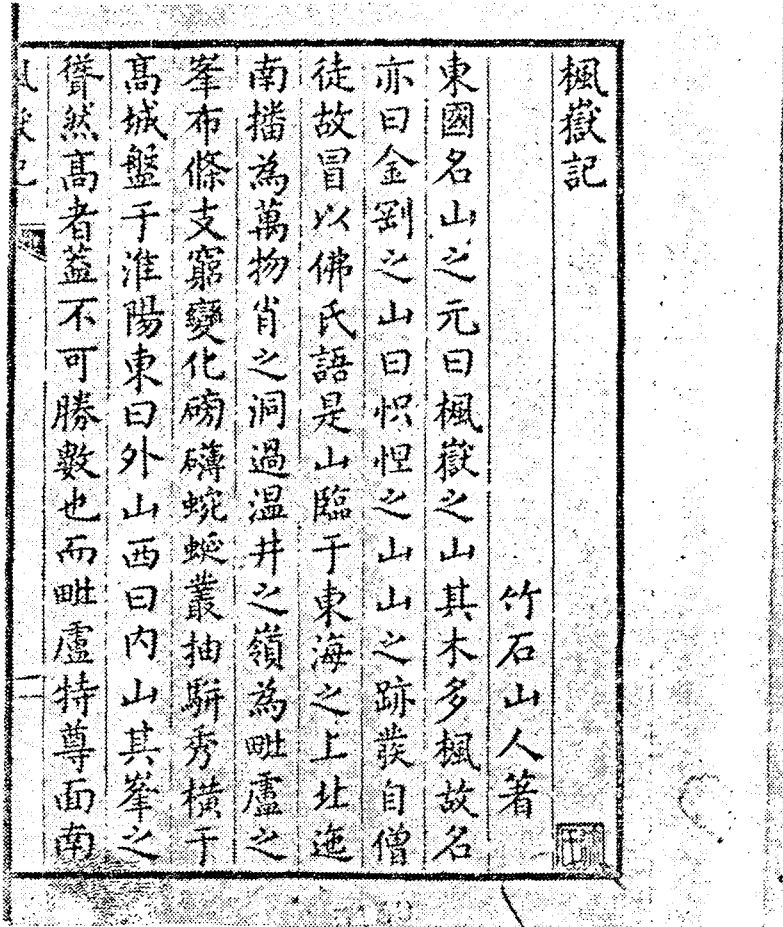
一書分四目曰經翼曰史別曰子餘曰集類是難因唐四庫漢魏叢書等目錄參互潤色狀其實

第七目 保晚齋叢書(凡例 1. 1A)

氏遺書…命臣良浩刪其繁冗卞其謬缺編成全書未幾臣猥撫西藩自內閣下旨又命刊印以進臣謹加雙校分部列目並與三世稿合成一帙析爲八編做中國聚珍堂活字印進…上之十五年辛亥仲秋…行平安道觀察使…洪良浩…跋」⁴⁵⁾

45) 1. 木活字本. 8卷4册. 奎章閣藏(奎2832, 5)

2. 이 跋文은 筆者의 鈔字與參考實字集(未刊)에 全文이 紹介됨.



第八圖 楓嶽記(卷首: I. 1A)

라 있으니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韓國書誌年表를 보면 日省錄과 承政院日記의 記事를 抄譯하여

1792(壬子)正祖16年

閏4月24日 內閣新造의 聚珍字譜를 完編했음으로 箕營에 下送하여 또 十六萬字를 加造케 함.⁴⁶⁾

이라 한 것으로 보아 聚珍字를 平壤에서 加造케 한 것 같기도 하다. 이 때가

46) 筆者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122.

五山集이 印出되어 頒賜된 前記 年表의

4月3日 車天輅·五山集의 頒行을 命함. 箕營에서 活印한 車天輅의 五山集을 頒賜함.⁴⁷⁾

란 記事의 約10日以後의 일이니, 加造케 한 活字가 五山集을 積은 活字와 同一한 活字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聚珍字의 加造가 언제 完成되었으며, 또 그 活字가 浮碧樓重修記를 積은 活字와 同一한 活字인가는 더 究明해 보아야만 하겠다. 萬一 이 加造가 이루어졌다면 從前의 所謂“聚珍字”의 初印本으로 認定한 金陵集보다 浮碧樓重修記가 初印本이 될 確率은 큰 것이다.

이와 같은 平壤에서의 木活字나 金屬活字의 刻成 또는 鑄造에 대하여는 따로이 稿가 準備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미룬다.

셋째는 鑄字所에서 錢牧齋의 初學集을 字本으로 刻成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韓國書誌年表에

6月29日 內閣에 命하여 木字本을 만들게 함. 이 때 御製를 印하고자 하여 平安監營에게 字本을 鑄銅시키다 木으로 代身함.⁴⁸⁾

이라 하였으니, 이는 正祖實錄의

丙申 命內閣造木字本 時欲印御製 令平安監營鑄銅爲字本尋以木代之 令內閣管造⁴⁹⁾

를 抄譯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內閣에서도 木活字를 造成할 수 있으며, 木活字本을 印出할 수 있는 能力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요, 또 이들 活字로 積은 책들에 關係된 사람이 대개 館閣에 關係된 사람이라는 것도 理由의 하나이다.

그러나 筆者로서는 이 세가지 假說에 대하여는 좀 더 慎重한 檢討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기 때문에, 그 設定만을 提示할 따름이다.

七. 所謂“聚珍字”名稱에 대한 反論

活字自體에 關한 究明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그 活字의 名稱으로서 所謂

47) 上揭書.

48) 上揭書.

49) 正祖大王實錄卷三五. 正祖16年6月丙申條.

“聚珍字”라는 名稱이 적당한가 하는 것을 檢討해야 한다.

從前에 “聚珍字”라고 부르게 된 根據로서 金陵集의 標題紙에 있는 「聚珍版本」이나, 保晚齋集의 跋에 있는

(略)丁未編定本用聚珍字擺印敬慕宜賜(略)⁵⁰⁾

에서 「聚珍字」를 擇하여서 使用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 名稱은 절대로 固有名稱으로 使用하였다기 보다는 木活字 全般에 共通되는 通常名稱으로 使用되었다는 것이 알맞는 말인 것이다.

그러면 그 名稱에 대한 얘기를 더 퍼기에 앞서 잠깐 “聚珍字,” “聚珍板,” “聚珍版”의 母式이 되는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에 대하여 一考해 보기로 한다.

이 책은 現在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으며 全1冊(34張)으로서 武英殿聚珍字本으로 적은 中國活字本이다.⁵¹⁾

이 책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니 徐有棻는 林園十六志에 그 一部를 要約하여 採錄하였으며,⁵²⁾ 文一平씨는 湖岩全集에서 이를 言及하였고,⁵³⁾ 韓泰錫씨도 出版學에서 天理閣書館 金子和正司書가 Biblia에 全譯한 것⁵⁴⁾을 다시 抄譯하여 紹介한 바 있다.⁵⁵⁾

그 책의 內容을 보면 全17個項으로 豊富한 插圖로서 說明이 되어있다. 이 제 그 目錄을 적어보면

一 御製, 二 奏議, 三 成造木字, 四 刻字, 五 字櫃, 六 槽版, 七 夾條, 八 頂木, 九 中心木, 十 類盤, 十一 齋格, 十二 擺書, 十三 墊版, 十四 校對, 十五 刷印, 十六 歸類, 十七 逐日輪辯辦法

50) 木活字本. 16卷8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D1-A165) 徐有棻의 跋.

51)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金簡, 等受命編. 乾隆41(1776)跋, 中國木活字本. 1冊(34張) 27×16.2cm. 奎章閣藏(支5407)

52) 1. 徐有棻: 林園十六志, 百五 怡公志卷第七 圖書藏訪下 第6~13張. “聚珍版式”
2.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 1969. 影印本. (서울大學校古典叢書, 第9輯) 第六卷 p.389~392

53) 文一平 “全簡과 金屬活字.” 湖岩全集 第二卷(文化·風俗篇) 文化的發掘一.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昭和14(1939) p.38~41.

54)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全譯) 金子和正. Biblia, No.23(富永先生華甲記念古版書誌論叢) p.409~434. 國. (1962.10)

55) 韓泰錫 “四庫全書의 活字印刷經緯一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을 中心으로” 出版學, 第12輯, p.31~36. (1972.6)

으로 되어 있으며, 一 御製에서 聚珍이라 賜名한 것이 쓰여 있으며, 卷末에 “乾隆四十一年(1776)十二月” 字의 四庫全書副總裁 金簡의 記가 붙어있다. 이 記를 쓴 金簡이 우리 나라 사람의 後孫인 것은 文一平씨가 이미 言及⁵⁶⁾하였고, 또 그 全文의 譯이 곧 發表될 것이므로 이만 省略하거니와, 우리 나라 活字鑄成이나 刻成 그리고 管理·印書의 技術이 中國으로 傳播되었다가 다시 그 改良된 技術이 우리 나라에 逆導入된 것은 오직 이 聚珍版式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逆導入된 木活字의 刻成이나 管理·印書의 技術은 늦어도 正祖13年, 즉 聚珍版式이 이루어진 13年後에 奎章外閣(校書館)에 到着한 것이니, 이는 다시 後에 言及하는 李氏三世忠孝錄의 標題紙에 「聖上己酉外閣聚珍」이라 한 것과 正祖實錄의 正祖20年丙辰(1796)3월에 보면

癸亥. 整理鑄字成教曰 (略)壬子命倣中國四庫書聚珍板式取字典字本木用黃楊刻成大小三十二萬館字名曰生生字(略)⁵⁷⁾

라 하였으니, 生生字의 刻成은 完全히 聚珍板式에 의하여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生生字를 字本으로 한 整理字의 鑄成·管理·印書까지도 中國에서 逆導入된 聚珍板式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이 實錄의 整理鑄字事實은 生生字나 整理字 그리고 改鑄整理字의 重要한 印本の 卷末에도 붙어 있어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聚珍字”라는 名稱이 不適當한가를 檢討해 보자, 그렇다면 于先史料와 實物에 나타나는 事實을 調査하여야 하니 聚珍字와 關係되는 記事를 추려서 對照하면서 檢討할 必要가 생긴다. 韓國書誌年表 1789(己酉)正祖 13年에 보면

※ 外閣에서 聚珍字로 李氏三世忠孝錄을 印出하다. (同書標題紙·序·跋)(略)⁵⁸⁾

라고 있다. 이에 의하면 李氏三世忠孝錄⁵⁹⁾의 標題紙에

「聖上己酉外閣聚珍. (同)」

56) 文一平. 前掲書.

57) 正祖大王實錄 卷四四. 正祖20年3月癸亥條.

58) 筆者. 前掲書. p.120

59) 活字本. 1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B12-A295)

이라 되어있고, 己酉年이 序의 上之十三年(1789)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實物을 實査해보면 後期芸閣印書體字로 印出했음을 알 수 있다.

또 1791(辛亥)正祖15년에

※ 內閣에서 校正한 五山集을 箕營에서 聚珍字로 活印하다. (同書 印出記, 跋(略)⁶⁰⁾

라 한 것은 五山集⁶¹⁾標題紙 裏面に 印出記로서

「內閣校正 箕營活印」

라 한 것과 그 跋文에

「(略)倣中國聚珍堂活字印進(略)上之十五年洪良浩 跋」

에서 나온 것이니, 이 책은 先學들에 의해 所謂“箕營木活字”라 불리우는 木活字로 印出된 책이다.

또 韓國書誌年表를 보면 正祖16年(1792)에

※ 芸館에서 華城傳寶의 花原勳節錄을 聚珍字로 印出하다. (同書標題紙 · 序(略))⁶²⁾

로 나와 있다. 이 花原勳節錄⁶³⁾은 그 標題紙에

「華城傳寶·勳節錄·芸館聚珍」

라 있고, 「上之即昨十六年壬子(1792)」에 朴南岳이 序를 쓴 冊이며, 後期芸閣印書體字로 印出된 책이다.

또 年表 正祖18年(1794)에 보면

9月24日 人瑞錄 完成함. (略) 新雕 聚珍板으로 印刊케 함.⁶⁴⁾

이라 한 것과 또 正祖實錄을 보면

戊申人瑞錄成(略)窠爲一書以新雕聚珍板印布壽傳至是工告完(略)⁶⁵⁾

으로 나와 있다. 이 御定人瑞錄⁶⁶⁾의 標題紙에는

「字典書體. (同) 甲寅初印」

60) 筆者編. 前掲書, p.121

61) 木活字本. 8卷4冊. 奎章閣藏(奎2822, 등)

62) 筆者編. 前掲書, p.122

63) 活字本. 3卷1冊. 奎章閣藏(奎5145, 등)

64) 筆者編. 前掲書, p.123

65) 正祖大王實錄卷四一. 正祖18年9月 戊申條.

66) 活字本. 4卷2冊. 奎章閣藏(奎2832, 등)

이라 있으니, 甲寅은 곧 卷首의 御製에 「(略)踐阼之十有九年甲寅也(略)」로 되어 있는 正祖18年이며, 弘齋全書에는 그 자세한 解題와 親撰序 全文이 실려있고, 또

「(略)編既成以生生字印頒」⁶⁷⁾

라고 活字名을 分明히 表示하고 있으며, 實物을 보아도 틀림없는 生生字本이며 卷末에는 鑄字事實까지 있다.

같은 年表를 보면 1824(甲申)純祖24年の

7月 是月 五車觀의 永嘉三怡集이 聚珍字로 印出되다. (同書 標題紙(略))⁶⁸⁾

라 있으니 永嘉三怡集⁶⁹⁾의 標題紙에

「甲申孟穩. 五車觀聚珍」

으로 나와 있고 또 序文이 있다. 이 책은 所謂“奎史字”로 印出되어 있다.

또 年表 純祖33年(1834)度を 보면

3月 是月 聚珍字로 種藷譜를 擺印하여 廣布하다. (同書序略)⁷⁰⁾

로 나와 있다. 이 種藷譜⁷¹⁾의 序에 의하면

「(略)餘爲是(略) 彙類編纂用聚珍字擺印廣布(略)上之三十四年甲午季春 湖南巡察使徐有築書于觀風軒中」

이라 하였으니, 이 책은 湖南에서 찍은 책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책을 찍은 活字는 印書體에 가까운 木活字이다. 이는 稿를 달리하여 紹介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所謂“聚珍字”로 印出된 책이 年表에 나타난다. (筆者가 한가지 양해를 미리 구할 것은 韓國書誌年表를 編할 때에는 모든 圖書를 調査못하였기 때문에 이 活字로 찍은 책들이 全部 記錄안된 것이 있다)

그 곳 純祖34年(1834)도에

67) 弘齋全書卷百八十 羣書標記= 鄭定= (影印本 p.107~113)

68) 筆者編. 前掲書, p.133

69) 活字本, 1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선암D2-A252)

70) 筆者編. 前掲書, p.135

71) 木活字本, 1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C5-A8)

※ 是 南公轍이 玉磬山房에서 重訂한 歸恩堂集을 聚珍字로 印出하다.
(同書標題紙, 年表)⁷²⁾

라고 있다. 이 歸恩堂集과 年表에 收錄치 못한 保晚齋集의 2種에만 “聚珍字”로 적은 記錄이 分明히 남아 있다.

以上 장황하게 說明한 것들을 아래 表 三과 같이 整理해 본다.

表三 “聚珍”字名 關係年表

印出年度	書名	表示方法	表示部分	印出處	使用 活字
1776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中國武英殿聚珍字
1789	李氏三世忠孝錄	聚珍	標題紙	外閣	後期芸閣印書體字
1791	五山集	聚珍堂活字	跋	箕營	所謂“箕營木活字”
1792	聚珍字譜	聚珍字	日省錄·承記		(未詳)
1792	花原勳節錄	聚珍	標題紙	芸館	後期芸閣印書體字
1794	御定人瑞錄	聚珍板	實錄	鑄字所	生生字
1796	(生生字·整理字鑄字事實)	聚珍板式	實錄·各册末	〃	生生字·整理字
1824	永嘉三怡集	聚珍	標題紙	五車觀	所謂“全史字”
1834	種譜譜	聚珍字	序	完營	木活字
1834	歸恩堂集	聚珍板	標題紙	玉磬山房	所謂“聚珍字”
1838	保晚齋集	聚珍字	跋		〃 〃

위 表三에 의해 採錄된 全9種中에서 그 名稱使用의 頻度を 對比해 보면

가. 聚珍만으로의 對 2:7(아닌活字)

나. 聚珍板으로의 對 1:2(아닌活字)

다. 聚珍字로의 對 1:1(아닌活字)

와 같다. 그 以外에도 出版地와 印出活字別의 對比도 可能하지만 採錄한 數가 적으므로 省略한다.

이 對比 結果는 調査되지 아니한 積속에서 所謂“聚珍字”로 적히지 아니한 數字는 이 活字로 적은 册보다 많이 늘어날 가망이 크다.

이렇게 統計的인 數字에서 나온 結論은 所謂“聚珍字”라는 名稱은 活字本의 通常名稱으로서의 可能性이 큰 것이며, 그중에서도 武英殿聚珍版程式에서 보드시 木活字를 指稱하는 것이 더 妥當하다고 하겠다.

72) 筆者見. 前掲書, p.135

그러면 從來에 “聚珍字”란 名稱이 없어야 하는 代身에 이들 活字를 改名하여 부를 必要가 생긴다.

우리 나라에서는 朝鮮初期부터 鑄字에 있어서는 鑄成된 해의 干支를 붙여서 癸末字·庚子字·甲寅字 등으로 부르고 있었음이 通例였다. 그런데 最近에는 同一干支에 該當됨으로 因해서 흔히 混同하기 쉬운 傾向이 생기고 있다.⁷³⁾

官鑄活字中 校書館이나 鑄字所같은 中央機關의 鑄字나 木活字들은 이제 하나하나 究明이 되고 命名되고 있으나, 아직도 地方官署에 의한 鑄字나 木活字, 그리고 民間 中 書院·寺刹·個人에 依해 이루어진 活字, 國外에서 搬入된 活字 등에 있어서는 그 名稱을 附與할 때에는 干支를 利用하던 그 活字의 特徵 特히 筆書者·書證·이루어진 場所나 機關 등등이 明瞭하게 表示되지 않아 判別에 支障을 줄 우려가 많다.

그러므로 正史 등에서나 弘齋全書의 羣書標記⁷⁴⁾와 같은 權威있는 書誌에서 命名되지 아니한 活字나, 改鑄나 補鑄가 자주 이루어진 活字 以外の 命名에 있어서는, 그 命名이 通常名稱에 가깝거나 反論의 우려가 있는 名稱을 採擇하는 것은 慎重을 期할 必要가 있다. 이렇게 새로이 알려진 事實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活字의 命名에 대하여는 따로이 稿가 準備되어 있어 論하고자 하거니와,

여기에서, 여섯것 詳論한 所謂 “聚珍字”에 對하여 筆者는 이를 “倣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라 고쳐 부르기를 提案한다. 그 理由로

1. 干支만을 붙인 字名은 判別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
2. 이 活字의 造成處는 平壤으로 斷定하기는 아직 資料가 充分치 않으므로 地名이나 機關名을 붙일 수 없다.

73) 그 한 例로 丙辰字가 있다. 이 丙辰字는 世宗18年(1436)에 晉陽大君(世祖)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寶治通鑑綱目의 大字를 鑄으로 鑄造한 것과, 正祖20年(1796) 3月17일에 鑄成된 整理字를 華山李聖儀씨가 부르는 것을 들 수가 있다.

74) 1. 正祖, 撰. 弘齋全書卷百七十九~百八十四 羣書標記一~六.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貴D1-A532)

2. 羣書標記. 서울, 學文閣, 1970. 影印本. 이 冊에는 李家源교수의 解題가 붙어 있으나 그 底本의 原藏者를 밝히지 않았으며, 또 上記本을 影印한 것은 刊印없는 卷首題와 版心題를 抹消한 바 있다.

3. 從前부터 “聚珍字”로 불러 왔으며
4. 그것은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의 方法을 導入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5. 字體가 半行半楷의
6. 木活字인 까닭이다.

八. 燕賀木(唐)字에 대하여

筆者는 앞서 이 倣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의 成立에 대하여 세가지 假說을 세우고, 그 첫째에서 中國에서 木活字를 廣求賀來해 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어찌서 그 可能性을 생각했는고 하니, 從前에는 우리 나라에서 鑄成한 鑄字나 刻成한 木活字에 의해서만 圖書가 印出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와 다른 重要한 資料를 보게된 까닭에 그 생각을 變更하게 되었다. 그 資料의 이름은 鑄字所應行節目이다.⁷⁵⁾ 이 資料는 일찌기 藤田亮策씨에 의거 書物同好會會報에도 紹介되었으며,⁷⁶⁾ 또 그의 朝鮮學論考에도 全文이 移錄되어 있다.⁷⁷⁾ 거기에 보면 燕賀木字에 對한 言及이 있으나 아무런 決論을 나리지 못하고 넘기고 있으며, 또 白麟先生도 그의 論文에서 言及을 하였으나 그 正體를 究明 못하고 있는 바이다.⁷⁸⁾

이 鑄字所應行節目은 外題가 板堂考이다. 그 “活字”條를 보면

燕賀木字大字一萬一千五百字	}	庚戌賀來
小字一萬一千四百五十字		
燕賀木字大字九千六百字	}	辛亥賀來
小字九千九百字		

라 있고, 또 “器用”條에는

燕賀唐字橫貳坐

가 記錄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中國에서 賀來한 木活字는 庚戌年과 辛亥年

75) 純祖14(1814) 寫本, 1冊(24張) 奎章閣藏(奎7909)

76) 藤田亮策: “鑄字所應行節目に 就きて,” 書物同好會會報, 第十一號, p.1~9. (昭和16.5) “板堂考(p.4~9)”

77) 藤田亮策: 朝鮮學論考. 奈良, 藤田先生紀念事業會, 昭和38(1963) p.563~585

78) 白麟. 前掲書, p.139~140. “15. 燕賀木字.”

의 두차례에 걸쳤으며, 두 체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節目의 成立된 해가 純祖14年(1814)甲戌七月 日이니, 中國의 木活字를 質來한 것은 正祖14年(1790)과 15年(1791)에 該當되는 庚戌年과 辛亥年일 것이다.

그런데 이 鑄字所에 있던 燕質木字는 哲宗8年(1857)丁巳十月十五日에 있던 火災로 그中 “辛亥質來”分이 被燒된 것 같으니 鄭元容의 袖香編에

丁巳十月十五日夜 殯殿都監假家火即鑄字所而都監堂郎之居接所也延燒於鑄字所大廳及行閣藏版之處(略)燕質唐字大字九千六百字小字九千九百字〈木字〉並被燒(略)⁷⁹⁾

라 하여 辛卯質來分의 數量과 同一한 것으로 보아 이 火災때에 辛卯質來分은 燒失되고, 庚戌質來分은 남은 것 같다.

이 木活字가 現存할 可能性이 있는 다른 證據로서 朝鮮活字類聚⁸⁰⁾의 標本을 들 수 있다. 그 책 가장 마즈막 張에 보면 名稱이 붙지 않는 木活字로 印刷된 標本한 張이 붙어 있는 바, 例示된 글자는 “兀, 丘, 井” 등 360字이다.

이들 글자 속에는 다른 系統의 字體도 包含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全部가 이 木活字로 되어 있다. 그것이 확실한 理由로는 字體가 같은 데다가, 版心の 黑魚尾도 같다. 이 朝鮮活字類聚에서의 다른 活字의 版心の 魚尾에는 그 活字의 組版時에 쓰인 魚尾를 그대로 쓰고 있어 쉽사리 알 수 있다.

이 活字가 燕質木活字일 可能性이 있는 證據로는

첫째, 이 活字 또는 그 印本을 聚珍字 聚珍板으로 부르고 있는 點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聚珍字”名稱의 反論時에 言及한 것처럼, 名稱에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版式을 欽定聚珍版程式의 方法을 導入한 것만은 否認할 수 없다.

둘째, 이 活字로 찍은 책이 알려지지 않는 아니하였지만, 官版書로서 이들 活字가 들어온 正祖14·15年(1790~1791)以前에 찍은 印本으로는 이 活字로 찍은 책이 發見되지 아니하였다는 點이다.

셋째, 木活字라는 點이다. 이것은 從前에 이 活字를 鑄字로 認定하였기

79) 鄭元容：袖香編. 서울, 同文社, 1971. 影印本. p.372~373 卷之五 “鑄字所藏木鑄字.”

80) 朝鮮活字類聚(外題) 活字本, 1冊. 藏書閣藏(1419-418 또는 2-4674)

81) 筆者編. 韓國書誌年表. p.122

때문이 燕質木(唐)字와의 連關을 度外認한 경우가 있었던 것도 考慮할 수 있다.

한편 앞서 言及한 것처럼 “內閣新造의 聚珍字譜가 完編했음으로 箕營에 下迭하여 또 十六百字를 加造케 함”⁸¹⁾을 들어 反論할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때 加造가 끝났는가하는 것은 確認할 수 없다.

다만 正祖實錄의 同年(16年, 1792)6月29日字에

“內閣에 命하여 木字本을 만들게 함. 이 때 御製를 印하고자하여 平安監 營에게 字本을 鑄鑄시키다 木으로 대신함.”⁸²⁾

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때 御製를 印하고자 木字本을 만들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考慮할 것은 이 當時의 御製들은 丁酉字나 實錄字로 印出된 것 以外에는 生生字와 整理字로 印出된 것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이들 네가지 活字中 丁酉字·實錄字와 整理字는 鑄字가 分明하고, 남은 生生字 만이 木活字이다. 앞서 言及한 것처럼, 이들 生生字로 印出한 책에는 鑄字事實이 붙어 있는 책이 많은데, 그 內容을 보면 聚珍版式을 舉論하고 있는 바, 이 正祖 16年 閏4월에 이루어진 聚珍字譜는 그 實物이 남아 있지 않는 대신에 生生字譜⁸³⁾라는 字譜가 남아있다.

이 生生字譜가 生生字의 字譜일진데 聚珍版式을 본만 生生字의 이 字譜를 聚珍字譜라 呼稱했을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記錄과 事實들을 連關시켜 볼 때, 이 燕質木(唐)字는 倣 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의 成立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말하고 싶다.

이 燕質木(唐)字의 問題解決에 보다 補充的資料가 出現하면 그때 다시 補論기로 한다.

九. 끝으로

以上으로서 筆者는 從前에 “聚珍字”라는 活字와 그 印出本에 대하여 考察한 바,

그 初印本으로 짐작되는 浮碧樓重修記를 紹介한 다음,

82) 筆者編. 上揭書.

83) 鑄字所, 編. 生生字譜. 1冊(82張)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A12-A4)

이 책을 찍은 活字와 같은 活字로 印出된 책들을 더 紹介하였고,
 또, 그 活字에 대한 여러 사람의 見解를 다시 收錄하여 보았고,
 그 것이 鑄字가 아닌 木活字임을 反論하였으며,
 이 活字의 成立에 있어 세가지 假說을 提示하였고,
 “聚珍字”라는 名稱은 普通名詞的인 것이므로 倣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라
 改稱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그 理由를 밝히고,
 이와 關聯하여 燕賀木(唐)字에 對하여도 一考하였다.
 이러한 事實들은 어디까지나 筆者의 寓目한 資料에 의하여 論及한 것이므
 로 새로운 資料가 出現되면 이를 修正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小論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 先學에게 感謝드린다.
 同學의 叱正을 빈다. (1973. 12. 5. 了)

Bubyeogru-junsugi and the books printed with
the same type font

— Anti-Chwijnja font —

Byeong-tae Yoon*

<ABSTRACT>

In this study, I have tried to examine the movable type font called "Chwijnja" (聚珍字) as hitherto and the book printed in Chwijnja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illustrate the origin of it more clearly, I introduced Bubyeogru-jungsugi (浮碧樓重修記) which has been believed the first printed edition of this book and also some other books printed in the same movable type font. By the way, I introduced some views of other bibliographers on Chwijnja.

I refuted the views that Chwijnja is metal type and then I substantiated it is wooden type. I also presented three hypotheses on the formation of Chwijnja.

I described the reason why we had better change the name of that printing type into "Bang-Chwijn-pansig Pilseoche Wooden Type" (倣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 on the basis of that its name is common noun. I also explained about "Yeonmu Wooden Type" (燕賢木(唐)字, Wooden Type font imported from China) which is relevant to my description.

* Korea University Library